2024.12.26.

국회예산정책처 | 나보포커스 | 제85호

nabo Focus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박승민 분석관

논의의 배경 :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문제 대두

- **고립·은둔 청년이란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을 말하며, 최근 해당 청년 지원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
  - '고립'은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를, '은둔'은 제한된 거주공간에서 외출이 거의 없는 상태[1]를 의미함
  -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적 분위기로 취업,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면소통이 어려운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 약화되고, 학업·취업 경쟁 등 위기 시 회복탄력성이 저하됨
  - 바깥 외출을 꺼리고 쓰레기를 모아두고 사는 경우도 있음[2]
-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상담 창구(청년미래센터, 보건복지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음**
-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정부의 지원 정책과 사업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고립·은둔 청년 현황 및 발생 원인

- **고립·은둔 청년(19-34세)은 최대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국무조정실의 "2022 청년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청년 응답자 중 5%에서 위기 징후 포착
  - 이를 전체 청년 규모(약 1천만명, '21년)에 적용 시 약 54만 명 규모로 추산
- **고립·은둔하는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고 삶의 만족도 및 정신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점수(3.7점)가 일반 청년(6.7점)에 비해 절반 수준

[표 1] 고립·은둔 청년 및 일반 청년 비교

구분	고립·은둔 청년	일반 청년
지난 2주 간 가족·친척과 교류 없음	16.8%	1.5%
지난 2주 간 친구·지인과 교류 없음	28.7%	0.9%
삶의 만족도(10점 만점)	3.7점	6.7점
자살 생각한 적 있다	75.4%[1]	2.3%

주: 1) 응답자 8,436명 중 약 6,360명(이중 자살시도한 적 있다 응답률은 26.7%)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023.12.13.

1) 관계 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2023.12.13.
2) 연합뉴스, ""방에서 안 나가요"…늘어나는 고립·은둔 청년" 2024.6.16.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고립·은둔 이유는 취업 실패(24.1%), 대인관계(23.5%), 가족관계(12.4%), 건강 문제(12.4%) 등으로, 대개 현 상태에서 벗어나길 희망(80.8%)**

- 고립·은둔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6.3%, 3개월 미만 15.4%, 10년 이상 6.1% 등 순

[표 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분	주요 내용
주로 하는 활동	• 돈을 덜 들이면서 시간 소요가 가능한 온라인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OTT 등 동영상 시청(23.2%), 온라인 활동(15.6%) 등의 순
고립·은둔 주요 사유	• 취업실패(24.1%), 대인(23.5%), 가족(12.4%), 건강(12.4%) 등의 순
회복 의지	• 80.8%가 현재 상태 벗어나길 원한다고 응답 - 응답자 67.2%는 민간기관 문의 등 탈 고립을 실제로 시도한 경험이 있음 - 반면에 '도움받은 경험이 없음' 응답자는 56% · 주요사유: ① 정보부재 28.5%, ② 비용부담 11.9%, ③ 지원기관 없음 10.5% 등의 순
가장 원하는 외부 지원	• 경제적 지원(88.7%), 취업·일경험(82.2%), 혼자하는 활동(81.7%), 일상생활 회복(80.7%), 장시간 혼자만 있을 수 있는 독립 공간(78.9%) 순

주: 복수 응답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023.12.13.

청년 고립·은둔의 사회적 비용

▪ **이와 같은 청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인당 2,200만원, 총 7.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2019년 기준)[3]가 있고, 고립·은둔 청년 다수가 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

- 비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비용 7조 2,56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인한 정책 비용 2,080억원, 건강비용 293억원 등

• 쉬었음[4](20-39세): ('22년) 62.2만명 → ('23년) 64.4만명 → ('24.10월) 70.8만명[5]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현황

▪ **경제·사회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 중**

- 그동안 청년층은 생애주기 중 신체적으로 가장 건장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복지 등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음

- 최근 청년의 경제활동 위축, 고독사 등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 **① 국회는 고립·은둔 청년을 비롯한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

- 위기 청년으로 고립·은둔 청년 외에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이 논의됨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3) 청년재단,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추계 결과", 2023.9.
코로나19 시기의 특수한 상황보다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비용 추계를 위해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고립청년 비율 3.1%(약 34만명)를 적용하여 도출함

4) 비경제활동인구 중 질병, 육아, 가사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일시적으로 쉬는 사람

5)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소득을 위해 배달업, 편의점 등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쉬었음'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상당수가 '쉬었음'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

▪ **② 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6]'(2023.9.)의 하나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제시(2023.12.)**

- 청년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하여, 상시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마련, 예방·관리체계 제도화 등을 주요 과제로 함

▪ **상기 방안을 실행하는 제반 사업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수행 중**

- 복지부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원스톱 창구(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고용부에서 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 문체부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케어 프로그램' 등
- 청소년기부터 고립·은둔 가능한 학생을 지원하여 청년기 고립·은둔을 예방하고자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부),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여가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있음

[표 3] 부처별 고립·은둔 청년(청소년) 주요 지원 사업

부처	사업명	주요 지원 내역
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지원 시범사업	• 고립·은둔 청년의 원스톱 상담·연결 창구인 청년미래센터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체계와 선도모델 마련(시범사업: 인천,울산,충북, 전북)
고용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 구직단념청년(6개월 이상 실업 등)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 조기 개입과 입사 초기 청년의 적응 지원 등
	청년도전 지원사업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문체부	문화 케어 프로그램	•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사회적 관계 형성)하고, 고립·은둔 성향이 강한 청년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연계·지원
교육부	학생맞춤 통합지원	•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조기 발견,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한 학생 성장지원 - '학교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학내 통합지원팀 구성·운영,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등
여가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	• 9~19세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한 방문 상담, 방문학습 등 종합 지원 프로그램 제공

주: 1. 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지원(시범사업)' 2025년도 예산은 15억 6,000만원이며, 그 외 부처의 관련 사업 예산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부분의 특정이 어려움
2. 복지부의 '긴급돌봄지원'의 경우 쓰레기집 청소 등을 지원하여 고립·은둔 청년도 대상이 되나,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 **③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2023)보다도 앞서 자체적으로 해당 청년 지원을 시작**

- 서울, 경기, 대구, 광주[7]의 경우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파악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설치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지원사업을 추진

6)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음건강 지원, 자산형성 지원

7)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19년~), (경기)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24년), (대구) 사회적 고립 청년 마음 돌봄사업('24년),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19년~)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사례

▪ **일본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引き籠もり;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8]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중장년으로 확대[9]**

- 최근에는 80대 노부모가 50대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부양하기도 함(8050 문제)
  * ('15년) 15~39세 54.1만명(해당 연령대 인구의 1.57%) → ('18년) 40~64세 61.3만명(1.45%) → ('22년) 15~69세 146만명(15~39세 2.05%, 40~64세 2.02%) 등
  * 조사 시점에 따라 대상 연령이 상이

정책적 고려사항

▪ **지원 대상의 구체화 및 정부·지자체 간 통일성을 높일 필요**

- 54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도 고립·은둔의 개념과 요건(나이, 취업, 사회적 관계) 등이 상이함
  * 서울(사회적 고립청년)[10]: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
  * 경기(은둔형 외톨이)[11]: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 대구(사회적 고립청년)[12]: 19세 이상 39세 이하,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냄,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
-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나가고, 필요 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필요

▪ **청년미래센터의 원스톱 창구로서의 안정적 기능 수행 및 성공사례 발굴 필요**

- 2024년 8월에 출범한 청년미래센터는 당초 계획 대비 상담 실적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 상담에 그치는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미비

[표 4] 청년 초기상담 현황(2024.12. 기준)

(단위: 명)

구분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계
당초계획	80	80	80	80	320
상담실적	295	74	133	73	575

자료: 보건복지부

- 고립·은둔 청년 전담인력의 경우 미충원, 중도 퇴사 등으로 완비하지 못한 상태
  * 4개 센터 정원 총 32명 중 25명 충원(78.1%, 2024. 12. 기준)
- 향후 청년미래센터의 안정적 운영, 고립·은둔을 극복한 경험자의 참여 유도, 고용부 등 유관 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할 필요

▪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및 장기적 예방 체계 필요**

- 발굴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① 초기상담을 통한 상태 판정, ②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③ 일상생활 관리를 통한 정서적·신체적 건강 회복, ④ 관계와 일을 통한 사회 연결과 자립 등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13]
- 고립·은둔은 치열한 경쟁 사회의 산물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실패를 경험한 청년을 포용하고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예방 체계를 강구할 필요

8) 지원체계 구축, 자립 상담 지원, 거주지 형성, 도우미(서포터) 파견 등
9) 김성아 등,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12.
10)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별도 나이 요건이 없음.
12)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3) 김성아 등, 위 자료

발간등록번호 | 31-9700484-001731-14 ISSN | 2672-0280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담당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문의 | 02-6788-374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